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137-2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사회지표: 가족에 대한 인식

2021. 7. 7.

담당자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차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이소연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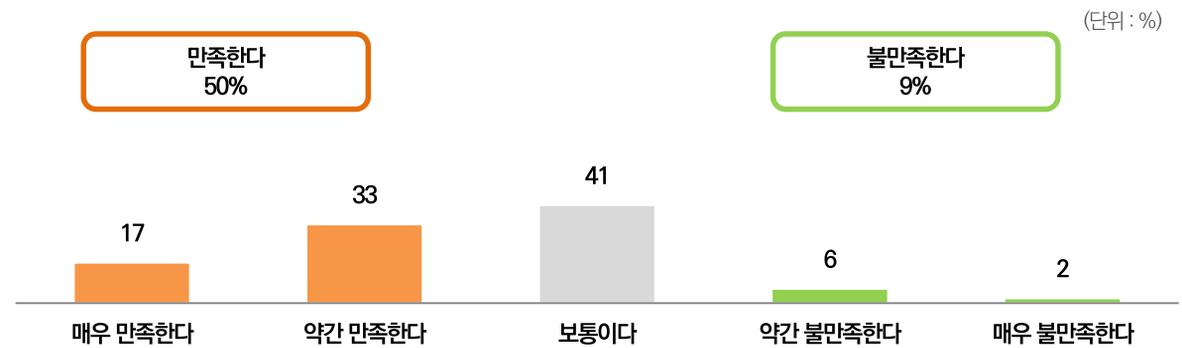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1 가족 관계 만족도

전반적인 가족 관계에 만족한다 50%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54%)보다는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66%)가 높아

전체 응답자의 50%가 전반적인 가족 관계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매우 만족한다 17%, 약간 만족한다 33%), 보통이라는 응답은 41%였다. 여자(만족한다 45%)보다는 남자(56%), 그리고 20대(56%)에서 가족 관계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반적인 가족 관계에 만족한다 50%, 남자와 20대의 긍정 응답 상대적으로 높음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만족한다 (매우+약간)	보통이다	약간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약간+매우)	계
전체	(1,000)	17	33	50	41	6	2	9	100
성별									
남자	(495)	19	37	56	36	6	2	8	100
여자	(505)	16	29	45	45	7	2	10	100
연령									
18-29세	(178)	32	23	56	33	8	3	11	100
30대	(156)	14	30	45	39	9	7	16	100
40대	(188)	19	34	53	42	4	1	5	100
50대	(193)	13	37	50	44	5	1	6	100
60세 이상	(285)	12	37	49	43	7	1	8	100

질문 : 현재 가족 관계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 전반적인 가족 관계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1. 06.17 ~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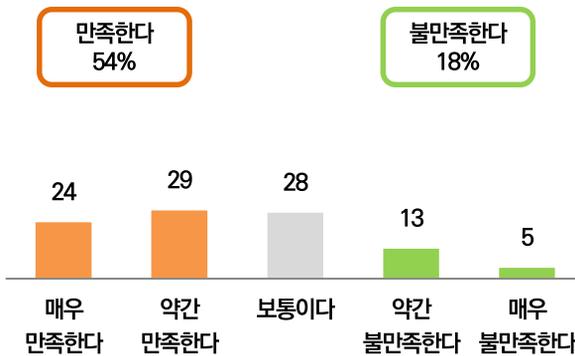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5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매우 만족한다 24%, 약간 만족한다 29%). 전반적인 가족 관계 만족도와 동일하게 여자(만족한다 45%)보다는 남자(64%)의 만족도가 높았고, 30대(59%)와 40대(61%)의 만족도가 50대(54%), 60세 이상(50%)의 만족도보다 높았다.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66%가 만족한다고 답해, 전반적인 가족 관계 및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보다 높았다(매우 만족한다 31%, 약간 만족한다 34%).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와는 달리, 자녀 만족도에 대해서는 성별이나 연령대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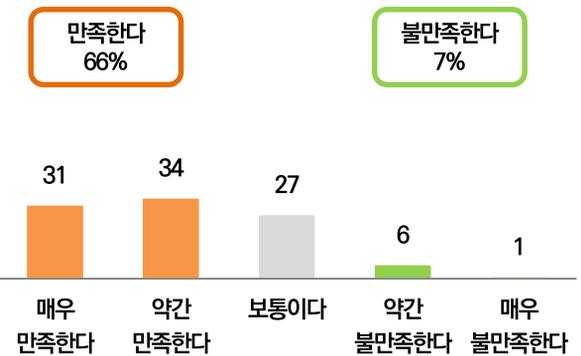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54%

(단위: %)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한다 66%

(단위: %)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만족한다 (매우+약간)	보통이다	약간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약간+매우)	계
전체	(594)	24	29	54	28	13	5	18	100
성별									
남자	(281)	31	33	64	24	10	3	13	100
여자	(313)	18	26	45	33	17	6	23	100
연령									
18-29세	(9)	0	11	11	41	21	28	48	100
30대	(64)	23	36	59	23	16	2	17	100
40대	(124)	34	26	61	22	15	2	18	100
50대	(166)	24	30	54	29	10	6	17	100
60세 이상	(230)	21	29	50	32	14	4	18	100

질문: 현재 가족 관계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 배우자와의 관계
 응답자 수: 현재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594명
 조사기간: 2021. 06.17 ~ 21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만족한다	약간 만족한다	만족한다 (매우+약간)	보통이다	약간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한다 (약간+매우)	계
전체	(625)	31	34	66	27	6	1	7	100
성별									
남자	(288)	30	38	68	23	7	2	9	100
여자	(337)	32	32	64	30	5	1	6	100
연령									
18-29세	(7)	13	46	59	28	13	0	13	100
30대	(55)	35	35	69	22	5	4	9	100
40대	(129)	35	33	68	27	3	2	5	100
50대	(164)	34	34	68	25	7	0	7	100
60세 이상	(269)	28	35	63	29	7	1	8	100

질문: 현재 가족 관계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 자녀와의 관계
 응답자 수: 현재 자녀가 있는 응답자 625명
 조사기간: 2021. 06.17 ~ 2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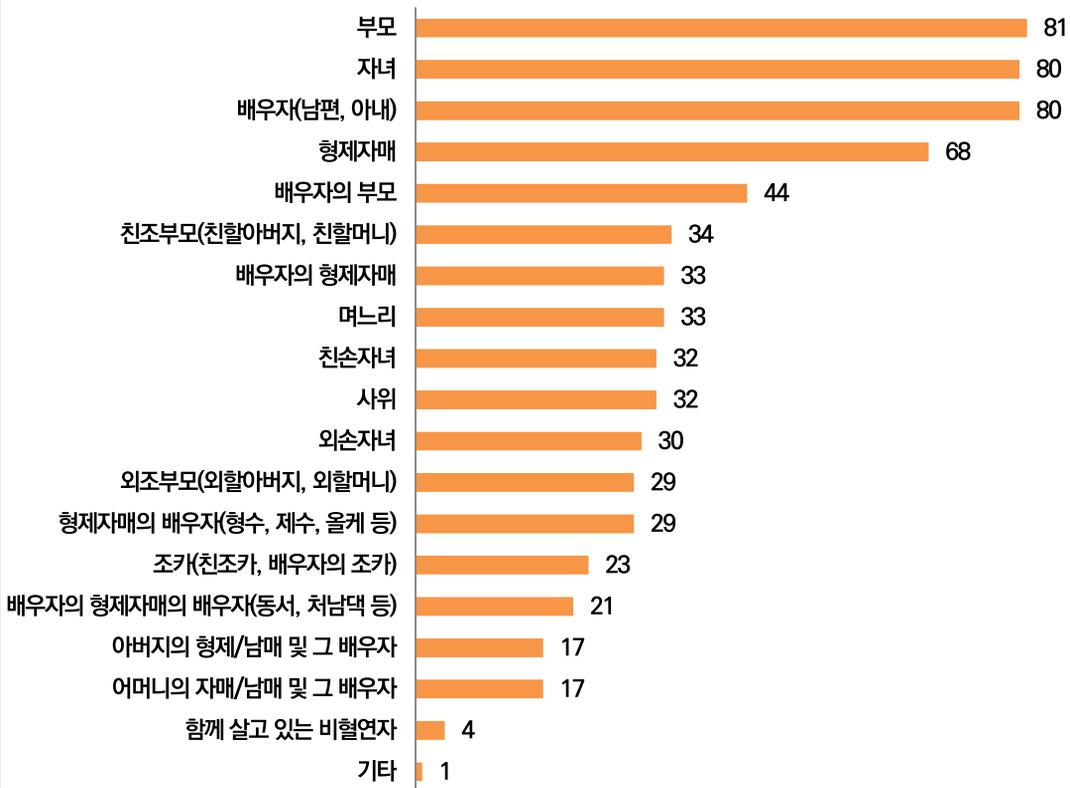
가족의 범위

부모(81%), 자녀(80%), 배우자(80%), 형제자매(68%) 순으로 '우리 가족' 이라고 인식

'우리 가족' 이라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사람으로 부모(81%), 자녀(80%), 배우자(80%)를 답한 응답이 80%를 넘었다. 형제자매(68%)와 배우자의 부모님(44%)이 뒤를 이었고, 친조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며느리, 친손자녀, 사위, 외손자녀, 외조부모,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은 큰 차이 없이 30% 내외가 '우리 가족' 이라고 답했다. 본인과 촌수가 가까울수록 '우리 가족' 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부모(81%), 자녀(80%), 배우자(80%), 형제자매(68%) 순으로 '우리 가족' 이라고 인식

(단위 : %)



질문 : 다음 중 귀하가 '우리 가족' 이라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사람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비고: '가족이다' 응답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2021. 06.17 ~ 2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0대는 부모와 형제자매, 50세 이상은 자녀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우리 가족’ 60세 이상에서 ‘우리 가족’의 범위 가장 넓어

미혼 응답자가 다수인 20대에서는 부모(95%), 형제자매(79%)를 가족으로 꼽은 응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고, 이러한 경향은 30대까지 이어진다. 반면 50대 이상부터는 자녀, 배우자를 꼽는 응답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모, 형제자매를 ‘우리 가족’으로 꼽는 응답이 높아지는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친조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며느리, 친손자녀, 사위, 외손자녀, 형제자매의 배우자, 조카,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우리 가족’으로 꼽는 응답이 높아졌다. 미혼이 많은 20대와 30대에서는 부모와 형제자매처럼 핵가족 내 구성원까지만 가족으로 보는 응답이 높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배우자와 그 가족, 손자녀, 사위와 며느리 등으로 가족의 범위가 더 넓게 확장되는 것이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유일하게 며느리(66%), 친손자녀(64%), 사위(62%), 외손자녀(60%), 배우자의 형제자매(50%)를 ‘우리 가족’이라고 답한 응답이 과반을 상회하였다.

20대는 부모와 형제자매, 50세 이상은 자녀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우리 가족’이라는 응답 높아 60세 이상은 ‘우리 가족’의 범위가 가장 넓어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부모	자녀	배우자(남편, 아내)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친조부모(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배우자의 형제자매	며느리	친손자녀	사위	외손자녀	외조부모(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올케 등)	조카(친조카, 배우자의 조카)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동서, 처남, 처녀 등)	아버지의 형제/남매 및 그 배우자	어머니의 자매/남매 및 그 배우자	함께 살고 있는 비혈연자	기타
전체	(1,000)	81	80	80	68	44	34	33	33	32	30	29	29	23	21	17	17	4	1	
연령																				
18~29세	(178)	95	61	57	79	19	28	10	13	11	9	26	11	12	5	13	13	3	1	
30대	(156)	85	56	67	72	36	22	22	13	11	11	19	17	16	10	12	12	3	2	
40대	(188)	80	81	80	64	45	27	32	16	18	16	25	25	24	17	12	12	1	1	
50대	(193)	79	92	90	62	57	36	41	37	36	38	33	38	26	30	18	17	3	1	
60세 이상	(285)	73	94	93	66	56	46	50	66	64	62	60	38	43	33	32	26	26	7	2

질문 : 다음 중 귀하가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사람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비고: ‘가족이다’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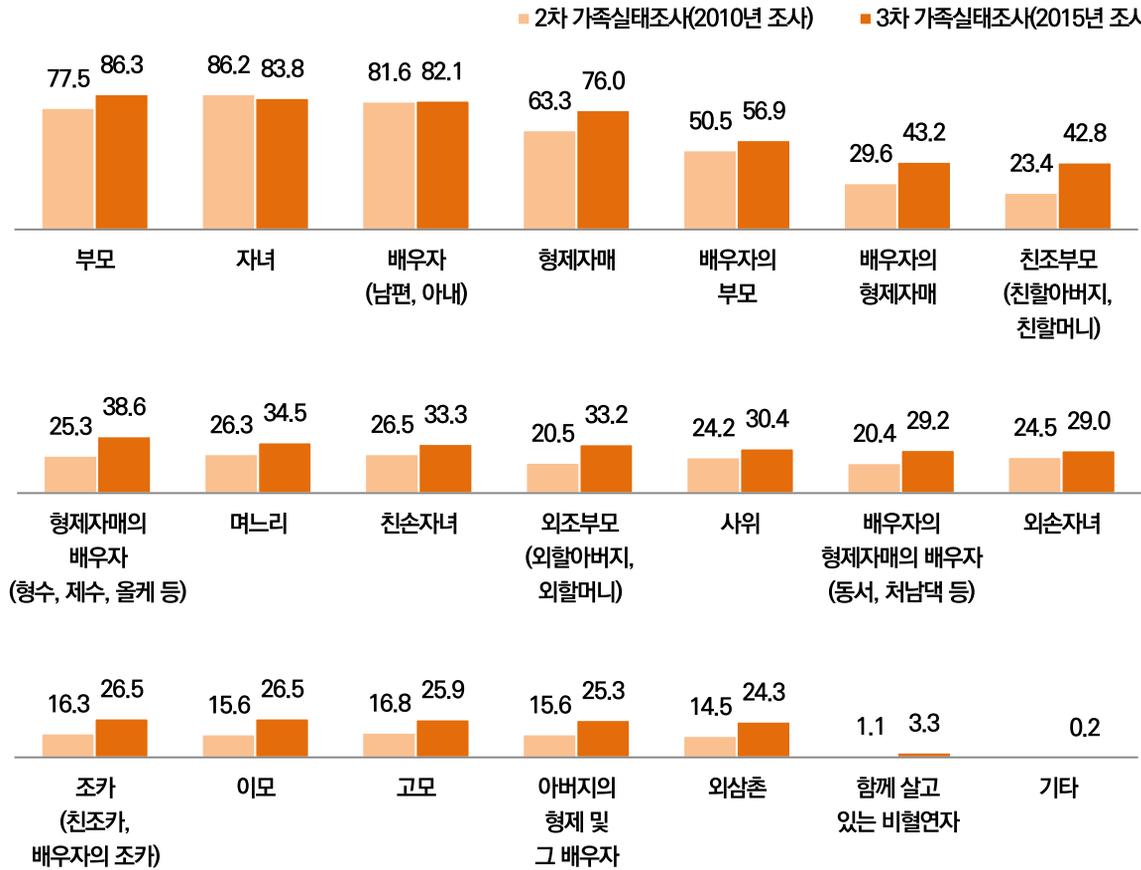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2021. 06.17 ~ 2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참고: 여성가족부 2차·3차가족실태조사 결과 역시 부모,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인식하는 비율 높음

(단위 : %)



질문: 다음 중 귀하가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할 때 포함되는 사람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복수 응답)

출처: 2010년, 2015년 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응답결과(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3&bbtSn=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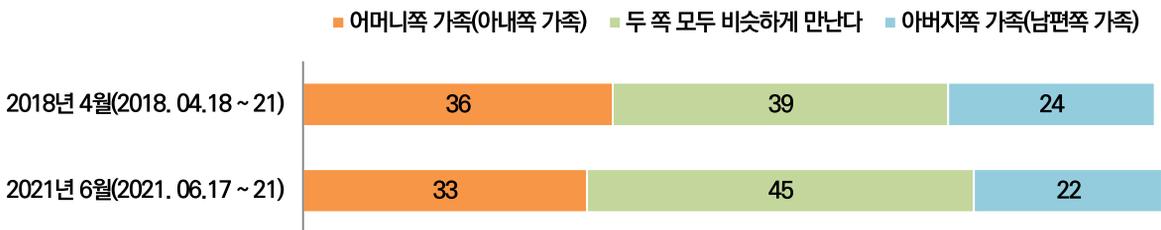
자주 만나는 가족

어머니(아내)와 아버지(남편)쪽 가족 모두 비슷하게 만난다 45% 2018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양 쪽 모두 비슷하게 만난다는 응답 증가

3년 전인 2018년 조사에서는 어머니(아내)쪽 가족을 더 자주 만난다는 응답(36%)이 아버지(남편)쪽 가족을 더 자주 만난다는 응답(24%)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 역시 3년 전 조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어머니(아내)쪽과 아버지(남편)쪽 가족을 모두 비슷하게 만난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높은 가운데, 어머니(아내)쪽 가족을 더 자주 만난다는 응답(33%)이 아버지(남편)쪽 가족을 더 자주 만난다는 응답(22%)보다 높았다.

어머니(아내)와 아버지(남편)쪽 가족 모두 비슷하게 만난다 45%, 2018년 대비 증가
어머니(아내)쪽 가족 더 자주 만난다 33%, 아버지(남편)쪽 가족 더 자주 만난다 22%

(단위 : %)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어머니쪽 가족 (아내쪽 가족)	두 쪽 모두 비슷하게 만난다	아버지쪽 가족 (남편쪽 가족)	계
전체	(1,000)	33	45	22	100
연령					
18-29세	(178)	33	46	21	100
30대	(156)	32	41	27	100
40대	(188)	40	40	21	100
50대	(193)	38	36	26	100
60세 이상	(285)	26	57	17	100
혼인 경험					
있음	(678)	34	46	20	100
없음	(322)	31	44	25	100

질문: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쪽 가족과 더 자주 만나십니까? 미혼·이혼하신 분들은 부모님을 기준으로 아버지쪽 가족/어머니쪽 가족을 생각하여, 기혼·사별하신 분들은 본인을 기준으로 남편쪽 가족/아내쪽 가족을 생각하고 응답해주세요.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2018. 04.18 ~ 21 / 2021. 06.17 ~ 2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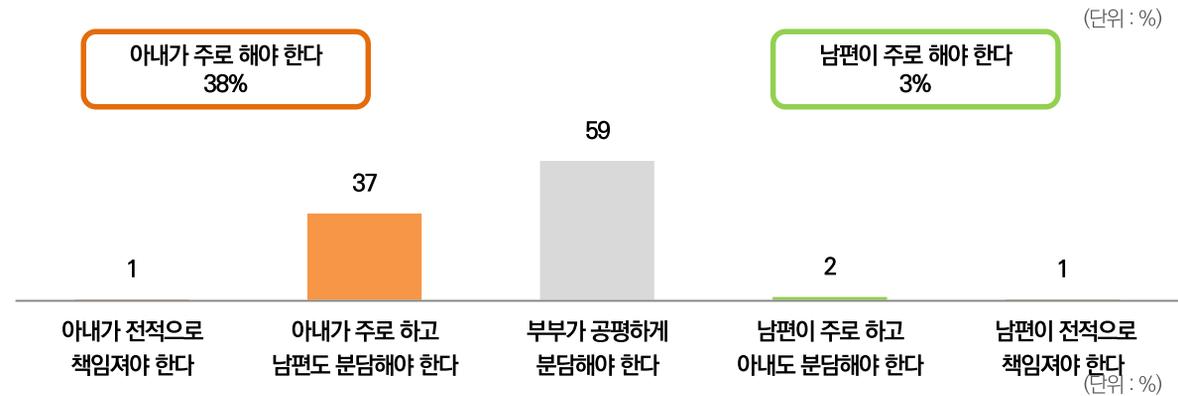
기혼 가정의 가사 분담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 59%
하지만 현실은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거나 주로 담당한다' 75%

전체 응답자의 59%가 '기혼 가정의 가사 분담은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 고 답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20대에서는 84%, 30대에서는 73%가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 고 답했다.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혹은 '아내가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38%였다. 50대에서는 51%가, 60세 이상에서는 55%가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혹은 '아내가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해야 한다' 고 답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바깥일은 남자, 집안일은 여자' 라는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이 벌어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기혼 가정의 가사는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 59%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 높아



구분	사례수 (명)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아내가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해야 한다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	남편이 주로 하고 아내도 분담해야 한다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남편이 주로	계
전체	(1,000)	1	37	59	2	1	3	100
연령								
18-29세	(178)	2	8	84	3	3	6	100
30대	(156)	1	22	73	2	1	4	100
40대	(188)	1	39	59	0	0	0	100
50대	(193)	3	48	46	2	0	3	100
60세 이상	(285)	1	54	42	2	0	2	100
혼인 경험								
있음	(678)	2	48	49	2	0	2	100
없음	(322)	1	15	79	2	2	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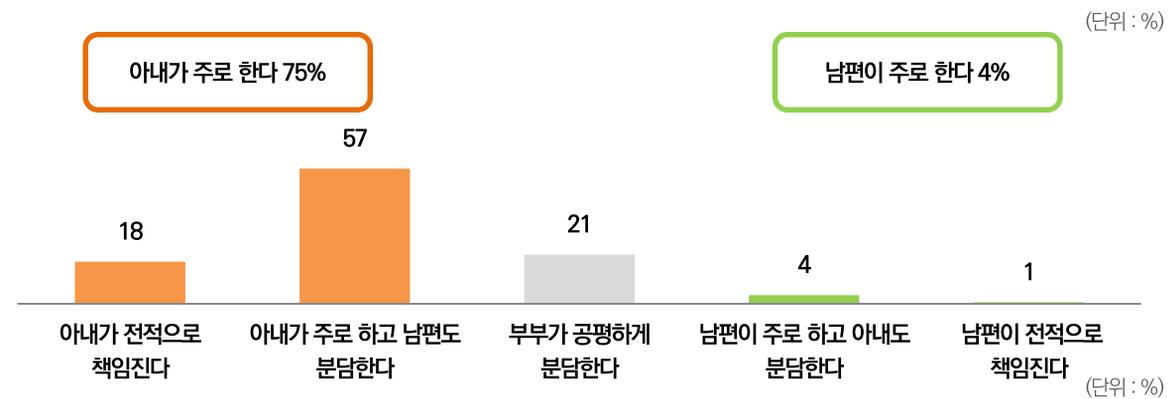
질문 : 기혼 가정의 가사 분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1. 06.17 ~ 21

현실은 어떨까? 현재 배우자와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 중,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은 21%에 그쳤다. 아내가 전적으로, 혹은 주로 담당한다는 응답은 75%였다(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18%, 아내가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한다 57%). 마음으로는 '부부가 같이 가사를 분담해야 한다' 고 생각하지만, 현실 속 가사 분담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 큰 것이다. 2·30대 응답자 중에서도 아내가 주로 담당한다는 응답이 과반에 이르렀고, 50대 이상 응답자 중에서는 80% 이상이 아내가 주로 담당한다고 답했다. 물론 여기에는, 경제 활동 등 현실적인 여러 이유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가사분담,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거나 주로 담당한다' 75%



구분	사례수 (명)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아내가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한다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한다	남편이 주로 하고 아내도 분담한다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남편이 주로	계
전체	(506)	18	57	21	4	1	4	100
연령								
18-29세	(6)	19	30	29	22	0	22	100
30대	(57)	2	49	39	9	2	11	100
40대	(109)	19	55	26	0	0	0	100
50대	(133)	25	55	15	4	1	5	100
60세 이상	(201)	18	63	16	3	0	3	100

질문 : 실제 귀댁에서는 가사를 어떻게 분담하고 있습니까?

응답자 수 : 현재 배우자와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 506명

조사기간: 2021. 06.17 ~ 2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5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용 정도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용도는 높은 수준

부부 성별이 동일한 동성가족에 대해서만 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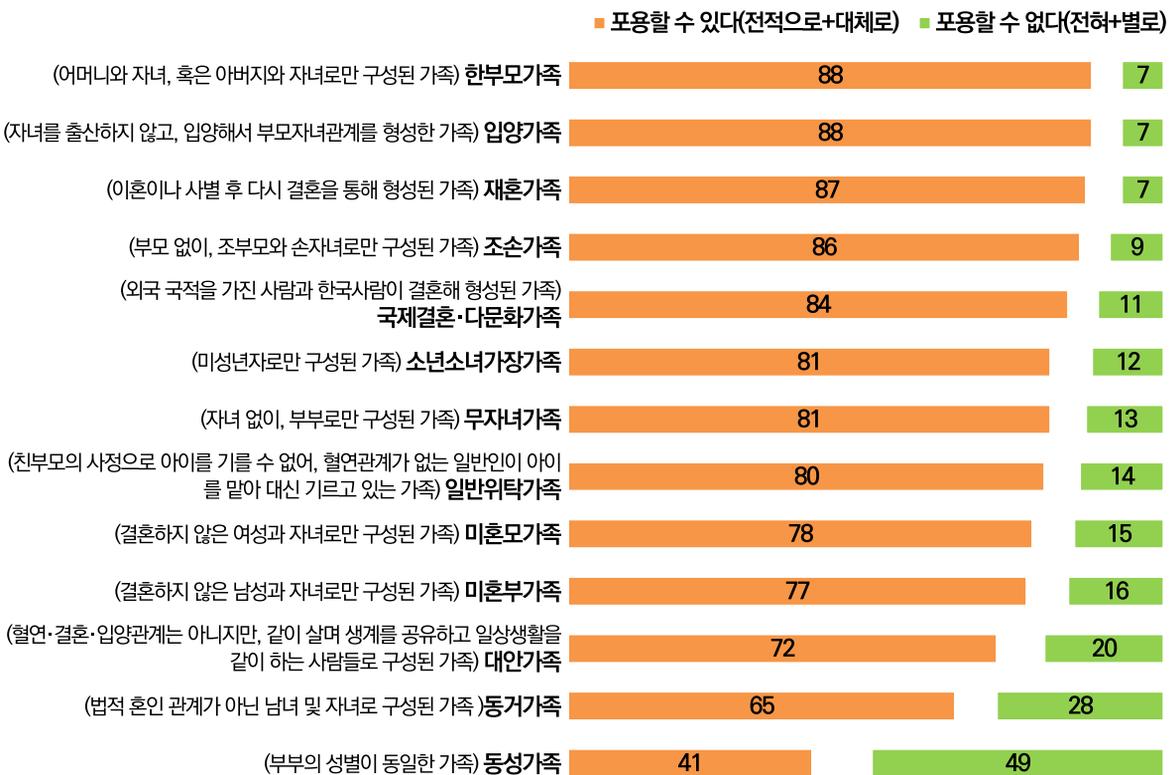
여성가족부의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의 비중은 2015년 44.2%에서 2020년 31.7%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54033>).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어 가고 있으며, 이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혁, 그리고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반적이라 여겨지지 않았던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우리는 포용할 수 있을까? 이번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 국민은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가족(포용할 수 있다 88%), 입양가족(88%), 재혼가족(87%), 조손가족(86%)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용도는 높았다. 다만, 부부의 성별이 동일한 동성가족에 대해서만 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49%로 포용할 수 있다는 응답(41%)보다 높았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용도는 높은 수준

부부 성별이 동일한 동성가족에 대해서만 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

(단위 : %)



질문 : 다음의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포용할 수 있으십니까?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2021. 06.17 ~ 21

연령대가 낮을수록 포용의 강도는 더 높았다. 20대는 각각의 가족 형태를 '전적으로 포용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응답이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포용할 수 없다'고 답한 동성가족에 대해서도 20대는 62%가 '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무자녀가족, 미혼모·미혼부가족에 대해서는 20대 뿐만 아니라 30대에서도 '전적으로 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자녀로 구성되는 전통적인 핵가족과는 다른 형태의 핵가족 역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것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용의 강도 높아
20대의 62%는 '부부의 성별이 동일한 동성가족도 포용할 수 있다'**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재혼가족		조손가족		국제결혼 ·다문화가족		소년소녀가장가족	
		전적으로 포용할 수 있다	대체로+ 전적으로 포용할 수 있다										
전체	(1,000)	39	88	38	88	33	87	35	86	35	84	32	81
연령													
18-29세	(178)	62	88	57	88	42	85	55	83	47	82	43	74
30대	(156)	43	89	44	90	37	86	41	84	38	86	40	82
40대	(188)	38	90	42	93	37	92	35	89	40	88	36	86
50대	(193)	33	91	30	91	30	92	31	90	29	83	27	85
60세 이상	(285)	26	85	27	83	24	83	23	85	25	81	21	77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무자녀가족		일반위탁가족		미혼모가족		미혼부가족		대안가족		동거가족		동성가족	
		전적으로 포용할 수 있다	대체로+ 전적으로 포용할 수 있다												
전체	(1,000)	35	81	23	80	29	78	27	77	19	72	20	65	12	41
연령															
18-29세	(178)	56	85	34	83	46	81	41	83	34	79	39	77	30	62
30대	(156)	46	85	27	78	40	80	38	79	24	72	25	66	15	50
40대	(188)	35	84	24	82	30	83	26	78	18	70	19	69	10	38
50대	(193)	25	79	18	82	21	79	20	76	14	74	14	68	6	40
60세 이상	(285)	22	75	15	78	18	70	18	71	12	68	9	54	4	27

질문 : 다음의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포용할 수 있으십니까?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2021. 06.17 ~ 2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on.co.kr)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 샘플(21년 5월 기준 약 59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1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6,052명, 조사참여 1,239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6.5%, 참여대비 80.7%)
조사일시	• 2021년 6월 17일 ~ 6월 21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論論

HankookResearch

